

1 世界景氣 3低 파급, 好成長 기대

王 然 均

〈中央大學校教授·經博〉

금년의 세계경제성장률은 2.8%로 전망되는데 이것은 연초의 전망보다는 다소 낮은 것이다. 이것은 석유생산국들에 있어서의 생산 축소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석유의 주요소비자인 공업 국가들에 대한 혜택이 천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 상반기 중 세계경제는 달러화의 약세, 저금리 및 저유가 등 이른바 3低現象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흥공업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진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 3低효과가 서서히 나타남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세계경제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으며 내년중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3.2%의 비교적 높은성장률이 예상된다. 이것은 1983년~1985년 기간동안의 연평균 성장률과 같으며 향후 5년간에도 이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률은 과거 15년간의 평균 성장률보다 1% 정도 낮은 수준이다.

금년 상반기중 세계주요국의 성장이 둔화된 주된 이유는 1981년 미국의 조세삭감에 의해서 유발된 재정확장의 효과가 끝났음을 보게 됨에 따라서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된 데 있다. 미국의 재정확장과 달러 강세는 수입량을 크게 늘려서 1985년 미국 생산을 약화시켰다. 미국경제의 약화는 다시 수입량의 감소를 가져오고 일본과 유럽의 경기를 약화시켰으며 이들 나라들은 과감한 내수진작정책을 취하지 않았다. 금년 들어 물가가 더욱 안정되고 이는 내년에도 계속되어 일본과 유럽은 여러가지 경기부양정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는 새로운 성장국면에 들어서 있다. 1985년 중반부터 이루어진 큰 폭의 이자율 하락은 세계적으로 내구소비재에 대한 지출, 주택투자, 기업투자 지출을 증대시키고 있다. 1985년 이후의 44%의 석유가 하락은 인플레이션 완화, 가계의 실질가처분 소득의 증가, 기업의 실질이익의 증가를 통해서 1986년 하반기와 1987년에 지출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1986년에는 주로 북미주와 유럽에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1987년에는 低油價의 효과가 세계의 더욱 광범위한 지역에 확산될 것이다. 1987년은 경기변동의 현재 “싸이클(cycle)”에 있어서 頂點을 이루는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1989년에 이르러 미국의 재고투자 감소에 기인한 세계적 경기침체가 예상되는데 그것은 1년 내지 2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년 하반기에 큰 폭으로 내렸던 세계금리는 내년중에는 민간부문의 자금수요증대와 물가상승예상 등으로 약간씩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무역수지개선 노력과 재정적자 감축 및 세계개혁에 따른 해외자본도입 감소 등이 달러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하여 1986년중에 실효환율(교역대상국들의 통화에 대한 평균환율) 기준으로 1985년말 對比 17% 하락하고 1987년중에도 8~9%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OPEC의 석유생산 감축노력이 계속되고 非OPEC 역시 가격안정을 위해서 협조할경우 유가는 금년중 배럴당 15~17불에까지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봄 비수기에는 다시 15불線으로 하락할 것이다. 석유소비국들에 있어서의 수요의 회복으로 1988년에는 18불선에서 유지되리라 전망된다. 세계경제의 확장이 계속되고 소비자들이 석유가 하락에 반응을 보임에 따라서 미국은 1986년중 석유수입이 25%나 증가하였다. 석유수입 개도국들 역시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低油價, 低利子, 低인플레이로 인하여 투자증가와 소비지출 확대가 예상된다. 채무국들은 특히 低金利에 따른 원리금상환부담이 완화되어 더 큰 혜택을 보고 있으며 이는 내년도도 계속될 것이다.

세계원자재 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나 농산물은 내년중 11%의 하락이 예상된다. 오랫동안 침체속에 있던 국제원자재가격이 금년 9월부터 약간씩 상승하고 있다. 세계경기 회복세가 계속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임산물과 광산품의 수요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교역량은 내년도도 금년과 비슷한 3.5%의 신장이 있을 것이다. 미국은 금년에 11%의 교역량 신장률을 보였으나 내년에는 수입제한조치 및 달러화 약세로 수입량이 줄어들어 교역량이 금년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일본은 수입확대로 인해서 수입량이 금년보다 훨씬 높은 6.3% 증가할 것이다. 또한 산유국의 수입감소는 계속될 것이다. 선진국들에 있어서의 내년 중 물가는 금년과 비슷한 3~4% 수준에서 계속 안정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향후 전망에 있어서 그외 몇가지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국들의 경제성장을 허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

금의 공급이 중요한 문제이다. 평가절하 그리고 자본 및 외환의 통제가 채무국에서의 국제기업활동에 계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둘째, 달러는 80년대 말까지 완만한 상승세(s-oft landing)를 계속할 것이다. 이러한 완만한 추세는 세계의 현재 경상수지불균형을 완전히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달러의 보다 급격한 평가절하나 보호주의의 강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미국의 큰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어 미국의 채무상태는 악화될 것이나 실질 달러이자율과 자본 수익률은 높을 것이므로 미국으로의 자본도입은 계속되어 미국의 채무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달러의 급상승(큰 평가절하: crash landing)을 방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으로의 순자본 유입량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

계속적인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를 일으키는 몇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 ①외국의 수출업자들은 그들의 통화가치의 상승만큼 미국으로의 수출가격(달러 표시)을 상승시키지 않고 계속적인 수출증가를 도모한다.
- ②외국에 비해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훨씬 높다.
- ③달러는 현재에도 너무 강세이다.
- ④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의 실질이자율은 미국이 높은 경상수지적자를 감당하도록 만들고 있다.

셋째, 향후 5년간 국제금융시장은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주요선진국들에서 금융시장의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서 각국의 금융시장의 발전이 다른 나라에 용이하게 파급되는 "채널(Channels)"이 강화되고 있다.

넷째, 외채위기는 세계경제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특히 멕시코, 베네주엘라 및 몇몇 산유국에서 심각하게 되었다. 다음에는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전망을 보기로 하자.

미 국

미국은 금년 상반기에는 2.4% 성장에 그쳤으나 3低효과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큰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1988년까지 성장국면이 계속되어 2차대전 이후 두번째 긴 경기회복을 보게 될 것이다. 1987년에는 인플레이가 시작되어 1988년에는 현재의 인플레이율 3~4%의 두배에

세계 교역량 전망

	1984	1985	1986	1987
세 계	8.5	3.2	3.8	3.5
선 진 국	12.4	4.4	5.8	3.7
미 국	30.1	4.1	10.9	0.1
일 본	12.5	0.2	3.3	6.3
개 도 국				
산 유 국	-9.5	-13.0	-15.0	-7.6
비산유국	4.9	5.1	4.2	5.2

〈表-2〉 주요국의 실질GNP 성장률 (%)

	1984	1985	1986	1987
세 계	4.4	3.1	2.8	3.2
OECD	4.6	2.8	2.7	3.3
미 국	6.8	2.5	2.7	4.1
일 본	5.8	4.6	2.9	3.2
서 독	2.8	2.5	3.3	3.2
프 랑 스	1.5	1.1	2.4	2.7
영 국	2.0	3.1	2.0	2.4
후 진 국	2.3	2.1	1.8	3.3

자료 : WEFA, 7월, 1986

〈表-3〉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

	1984	1985	1986	1987
미 국	4.3	3.5	2.8	3.9
일 본	2.2	2.1	0.5	1.6
서 독	2.4	2.2	0.3	0.9
프 랑 스	7.3	5.5	3.3	2.8
영 국	4.4	5.5	4.1	3.3

자료 : WEFA, 7월, 1986

이를 것이다. 미 의회는 1987년에 정부지출을 190억불, 1988년에는 240억불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89년에는 미국의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내년중 통화긴축이 예상되며 세계개편에 따라 개인소득에는 87년에 평균 16% 감면되고, 88년에도 6.1% 감면이 예상된다. 또한 감가상각제도 개편과 투자세액공제의 폐지로 철강, 화학 등 중화학공업과 부동산업은 增稅로 손해보는 반면에 첨단산업, 소비재산업 및 도소매업은 최고세를 인하로 혜택을 볼 것이다.

달러의 평가절하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 미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악화된다는 소위 "J 커브" 효과가 그동안 관찰되었는데 그 바닥을 최근에 경험하였으므로 경상수지적자규모는 차차 적어질 것이다.

일 본

명목달러 가치로 계산한 수출은 금년중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엔高 때문이며 수출물량은 금년 3월 이후 계속 전년수준을

下廻하고 있다. 기업설비투자의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자 정부는 금리를 계속 인하하여 왔으며 공공투자와 정부지출을 크게 증가시켜 왔다. 이러한 내수증대책에 힘입어 내년에는 금년보다 높은 3.2%의 성장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엔高와 수입물가의 하락으로 금년중 도매물가는 9.2% 하락하였으며 내년에도 4.7%의 하락이 있을 것이다. 경상수지흑자는 금년의 753억불에 이어 내년에도 737억불의 흑자를 거둘 것이다.

유 럽

금년중 서독은 유럽에서 가장 강한 성장세를 보여 3.3%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내년에도 비슷한 성장이 예상된다. 내수의 증가가 주원인이었으나 수출의 급증도 금년의 높은 회복세의 중요한 요인이다. 물가안정과 소득세감면 등으로 소비지출증가가 가속화할 것이며 투자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수출과 기업이익은 내년에 다소 둔화세를 보일 것이다. 마르크화의 강세가 그 원인이다. 연초의 부진으로 금년에 2.4%의 성장에 예상되는 프랑스는 현재 호전되고 있는 경제여건에 힘입어 내년에는 2.7%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프랑화의 약세로 경상수지도 어느정도 개선될 전망이다. 영국은 금리하락, 조세감면 및 물가하락으로 주택건설을 중심한 투자가 증대하여 내년도에 경제성장률은 금년보다 높은 2.4%가 예상된다. 그러나 경상수지는 내년중 적자를 시현할 것이다.

동남아제국

대만은 금년중 127억 달러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거둘 것으로 보이며 경제성장률도 8~9%에 이를 것이다. 87년에는 무역마찰 및 대만통화의 평가절상압력 등으로 6~7%의 성장이 예상된다. 막대한 무역흑자에 의하여 통화량(M₁)의 증가는 지난 7월중에 31%에 이르렀다. 홍콩도 금년과 내년에 5~6%의 성장을 보일 것이며 내년중의 경상수지흑자는 27억불에 이를 것이다.

싱가포르는 금년의 -1.5% 성장에서 내년에는 1%의 성장이 예상된다. 금융건설업의 부진과 석유가격의 하락에 의한 석유관련산업의 침체 그리고 인근 아세안지역의 경기침체가 싱가포르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